

90年代 濟州觀光開發의 方向

李 長 春*

I. 序 論

韓國觀光은 1960年代의 發芽期, 1970年代 前半期의 發育期, 1970年代 後半期의 開發育成期를 거쳐 1980年代인 現在 成熟期에 머무르고 있다.¹⁾ 韓國觀光이 成熟期에 이르기까지 濟州道 地域이 擔當해온 役割은 매우 큰 것으로 評價되지만 其間의 濟州道觀光開發計劃의 頻繁한 修正과 中央政府單位에서 計劃한 開發戰略은 濟州道地域 住民을 富強케 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評價된다.

특히 濟州地域觀光開發計劃의 全過程에 濟州道 地域住民의 參與가 保障되지 못한 점과 據點開發式의 開發戰略 導入은 濟州道의 歷史性, 文化性, 地域性, 住民의 價值觀을 考慮하지 못한 채 開發됨으로써 向後의 開發戰略構想에 障碍要因으로 登場하고 있다.

1991年的 國際觀光需要가 300萬名 水準에 達할 것이고 2001年에는 600萬名 水準에 이를 것으로 展望되며 國民觀光需要는 1991年 약 2億名, 2001年 약 2億6千萬名으로 展望되므로²⁾ 增加하는 國際・國民觀光需要充足空間으로서 濟州道의 役割은 더욱 增大될 것이다. 한편 中國의 觀光門戶開放과 日本의 海外旅行者數의 增大³⁾ 및 西南海岸一周型 海上觀光course의 開發은 濟州道地域의 觀光吸引力을 增大시킬 것으로 評價된다.

* 경기대 교수

1) 李長春, “韓國의 福祉觀光政策開發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5, p.1.

2) 李長春, “山地觀光開發計劃의 目標와 戰略”, 山村地理綜合方向에 對한 세미나,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業開發研究所, 1988.4. pp.152-153.

3) 1991년까지 日本人의 海外旅行者數를 1,000萬名에 이를 것으로 展望됨.

따라서 濟州地域觀光開發計劃의 全面的인 修正이 不可避하게 되었고 濟州道의 地域性, 歷史性, 位置性, 文化性, 住民의 價值觀과 調和되는 觀光開發計劃의 方向設定이 時急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이런 觀點에서 本稿에서는 濟州地域觀光開發의 過程과 實態 및 問題點을 考察한 뒤 濟州地域觀光開發計劃의 理念, 目標, 戰略을 提示코자 한다.

本研究에 導入된 方法은 文獻 및 資料調查(Books & Data Research), 歷史的 接近法, 地理學的 接近法이 大宗을 이루며 其間 筆者의 先行研究를 必要한 範圍內에서 活用하였다.

II. 濟州地域觀光開發의 實態分析

1. 過 程

濟州地域觀光開發은 1963年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근거한 제주도 자유항 설정 구상과 1964년에樹立된 濟州道綜合開發計劃에 그起源을 찾을 수 있으나 이 計劃은 實際로 推進되지 못하였다. 建設部에서는 1966년 제주도 지역을 特定지역으로 고시하였다. 1970年代에 접어들어 交通部에서 龍淵, 萬丈窟, 正房瀑布, 安德溪谷, 天帝淵을 指定觀光地로, 그리고 建設部에서는 漢拏山을 國立公園으로 確定하였다.⁴⁾ 1971年に 確定되어 1972年부터 1981년 까지 10個年計劃으로 推進된 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는 8中圈의 하나로서 濟州道를 指定하여 그 機能을 觀光과 商業으로 特化시켰다.⁵⁾ 國家의 上位計劃에서 濟州道를 觀光機能으로 特化시킨 것은 큰 意味가 있으며 이는 곧 1973年 靑瓦臺內에 構成된 觀光企劃團에 의해서 濟州道觀光綜合開發計劃이 10個年 時間幅으로樹立되지만 여러 차례의 計劃修正이 그 後 뒤따르게 되었다. 1975년에 濟州道觀光開發計劃事業이 確定되었으나 이것 역시 그대로 실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濟州觀光開發의 核地帶로 設定한 中央觀光園地는 計劃修正에 따라 現在까

4) 李長春, 觀光地域資源 等(서울:大旺社, 1978), pp.184-185.

5) 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 大韓民國政府 1971, p.12.

지 地團의 造成이 매우 느린 速度로 遂行되고 있는 實情이다. 觀光企劃團이 解體되고 난 뒤 一定期間 동안 濟州道觀光開發은沈默期를 맞은 後 內國人의 所得向上에 따른 訪濟客의 增加로 民間部門의 小規模開發이遂行되었다. 그러나 民間部門 開發의 資本은 非濟州道人の 것으로서 開發의 利益이 濟州道에 還元되지 못하고 他地域으로 流出되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濟州道地域自由港構想이 나왔고 이어서 1985年 第1次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이 확정 추진되었다.

國土開發研究院이樹立한 特定地域 濟州道綜合開發計劃過程에서 濟州道를 自由港으로 開發하려는 때 이른 試圖가 있었으나 이는 專門家들의 反對與論에 밀려 保留되었다. 다만 濟州道에 中央政府가 集中投資해야 하는 投資額의 過多策定만 남겨 놓아 問題點을招來하였고 자칫 濟州道의 卒速開發을 가져올 수 있는 憂慮를 안은 채 그 計劃은 포류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交通部에서 1971年 指定觀光地로 指定한 5個 地域 以外에 觀光地와 國道立公園의 二重指定을 調整한 政府當局의 努力에 依하여 指定觀光地와 國民觀光地가 觀光地로 統合된 後, 咸德海岸, 狹才海岸, 濟州南元의 觀光地로 追加 指定되었다.

以上의 8個觀光地中 咸德海岸은 1983年에, 狹才海岸은 1985年에 國費와 地方費를 投入하여 一次 開發되었으며 1986年 돈내코가 開發된 것이⁶⁾ 交通部 次元의 開發이며 한라산과 中文觀光團地는 向後 開發의 哲學을 定立한 後 持續的인 擴充開發이 必要한 時點에 와 있다고 評價된다.

濟州道觀光開發의 方向을 再定立하기 위하여 1989年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의 修正補完을 위한 용역이 의뢰되었고 그 結果가 韓國開發研究院에 의해 1989年 9月 完成되어 國務總理室에 提出되었다. 이 報告書를 바탕으로 國務總理室에서는 1990年 3月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의 基本方向을 設定하였고 이의 具體的 作業이 現在 研究되고 있는 實情이다. 다만 KDI에서 完成한 濟州道綜合開發計劃의 再檢討에서는 濟州道와 유사한 外國觀光地를 하와이, 빌리, 바하마, 태국의 파파야, 홍콩, 마이크로네시아의 팜으로 設定하고 이

6) 觀光動向에 關한 年次報告書, 交通部, 韓國觀光公社, 1987, pp.116-119.

地域과의相互比較分析을 통해 濟州道開發의 方向을 設定코자 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이 報告書에 나타난 開發戰略은 現在 具體的인 細部計劃이樹立中에 있기 때문에 아직 評價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된다.

以上의 濟州道觀光開發過程分析을 통해 나타난 特性은 濟州地域住民들의 地域愛(region egoism)와 中央政府의 開發方向이 葛藤을 일으킨 結果, 濟州道民들은 開發에 對한 懐疑와 傍觀이란 否定的 價值觀을 形成하게 되었다는 點이다.⁷⁾ 이는 다분히 中央集權的 劇一的 急造成의 開發哲學이 가져온 副產物이며 조속히 是正되어야 할 課題들이다.

2. 問題點

濟州地域觀光開發過程上 導出된 問題點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濟州道內의 觀光資源을 網羅한 觀光資源의 價值評價가 未備하여 觀光資源開發의 優先順位가 定立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中央集權的 開發計劃의樹立과 執行過程에 濟州道民의 參與가 制度의로 保障되지 못한 結果 濟州道民의 意思와는 거리가 먼 開發이 進行되고 있다.

셋째, 濟州道의 特色있는 土俗的資源을 무시한 開發哲學의導入으로 地域特化觀光商品이 開發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濟州道의 位置性, 地域性, 文化性, 歷史性 및 觀光環境을 考慮한 全天候型 觀光開發이 未治한 實情이다. 특히 濟州道와 韓國의 他地域 觀光開發을 連繫시킨 開發戰略의 未熟함을 露呈시키고 있다.

다섯째, 濟州道民이 아닌 外地의 資本이 觀光開發에 投入됨으로 因하여 開發利益이 濟州道民에 歸屬되지 못하고 外地로 流出되어 濟州道民의 價值觀이 傷害와 挫折中心型으로 變化되고 있다.

여섯째, 據點開發式의 不均衡 開發戰略을 採擇함으로 인하여 向後 均衡의

7) 筆者が 特定地域濟州道綜合開發計劃 國際學術세미나에 參席次 濟州道에 머무는 동안 濟州道民들과의 인터뷰에서 느낀 事項임.

는 濟州道觀光開發의 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일곱째, 濟州地域이 韓國의 觀光需要를 擔當할 수 있는 役割과 位置가 設定되지 못한 結果, 韓國의 餘暇空間 再編成에 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특히 濟州地域의 觀光收容力(Tourist carrying capacity) 分析이 觀光地와 開發可能性을 中心으로 遂行되지 못한 結果 濟州地域觀光開發計劃의 어려움을 加重시키고 있다.

여덟째, 中國의 觀光門戶開放과 日本人의 海外旅行者 增大 등의 外部的 國際觀光環境變化에 能動的으로 對應한 觀光供給計劃이 樹立되지 못하고 있다.

III. 濟州地域觀光開發計劃의 方向性 : 理念, 倫理

濟州地域觀光開發이 指向해야 할 基本方向을 理念, 倫理를 中心으로 設定하면 다음과 같다.

(1) 濟州觀光開發이 追求해야 할 理念은 衡平性과 生產性의 調和이다. 여기서 衡平性은 社會的 衡平(Social Equity)⁸⁾에 바탕을 둔 配分的 正義가 實現되는 濟州地域觀光開發의 理念으로서의 價值를 지니며 生產性은 能率性과 效果性을 합친 概念인 效率性에 바탕을 둔 理念이다.⁹⁾

(2) 濟州地域觀光開發은 「開發」의 問題와 「保存」의 問題 사이에서 葛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解消키 위해서는 保存中心型 開發의 方向이 設定되어야 한다.

(3) 濟州地域觀光開發은 濟州道 全域을 對象으로 巨視的 段階(Macro-phase)의 觀光計劃과 過程的 段階(Transitional phase)의 觀光計劃 및 微視的 段階(Micro-phase)의 觀光計劃으로 이어지는 段階的 觀光開發計劃의 樹立이 前提되어야 한다.

8) H. George Frederickson, *New Public Administration* (Alabama :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7), p.6.

9) 李長春, 觀光計劃開發論(서울 : 大旺社, 1987), pp.25-26.

(4) 濟州地域觀光開發은 韓國의 餘暇空間 編成의 次元에서 그 基本戰略을樹立하여야 한다.

(5) 濟州地域觀光開發의 效果가 濟州地域 住民에게 歸屬될 수 있는 開發의 目標와 目標達成의 代案이 選擇되어야 한다.

(6) 濟州地域觀光開發 過程에 濟州地域 住民의 參與가 保障되어야 한다. 地域住民은 觀光開發計劃의 樹立過程, 執行過程, 評價過程의 全過程에 參與되어야 하며 觀光開發로 인하여 濟州道民의 權利가 侵害 되었을 시는 救濟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7) 濟州地域觀光開發은 開發對象地를 中心으로 그 地域의 特性에 따라서 邁正收容能力(potimum carrying capacity)을 設定하고 이러한 邁正收容能力의 範圍內에서 開發의 推進되어야 한다.

(8) 濟州觀光開發은 海洋・內陸・山地의 類型 特性과 海洋・內陸・山地가保有하고 있는 各種 資源과 地域住民의 要求를 考慮하여 特化施設物을 開發하여야 한다. 特化施設物의 開發은 海洋・內陸・山地를 對象으로 觀光開發 類型과 導入活動 條件分析을前提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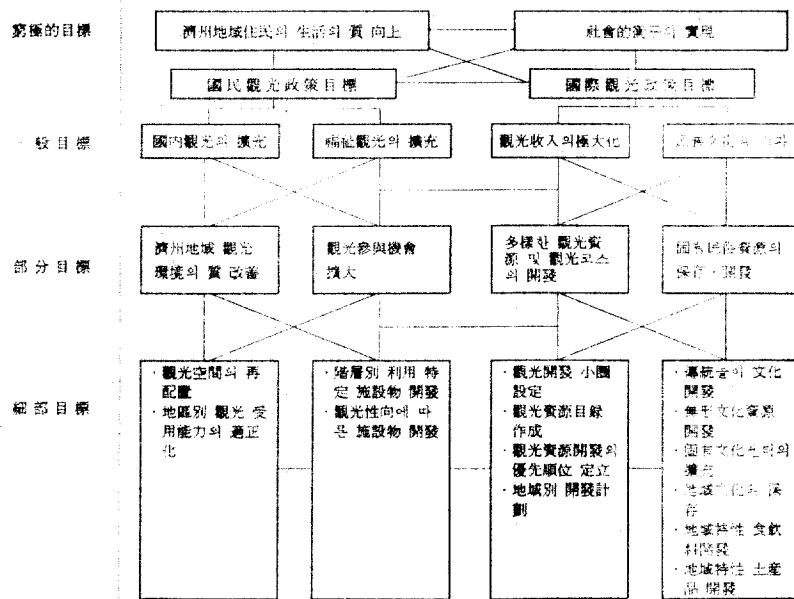
(9) 濟州地域觀光開發은 內國人의 健全한 休暇文化 定着을 指向하는 國民觀光需要充足空間으로서 開發되어야 하며 外來客을 對象으로는 特化觀光商品으로서의 價值를 지니도록 開發하여야 한다.

(10) 濟州觀光開發은 未來의 國土資源의 管理라는 側面에서 未來社會의變化樣相을 考慮하여 後世代에 물려줄 수 있는 空間을 設定한 開發目標의倫理性과 開發目標達成을 위한 手段의 規範性을 確保하여야 한다.

IV. 濟州地域觀光開發計劃의 目標와 戰略

1. 目 標

濟州地域觀光開發計劃의 目標를 窶極的 目標(ultimate goal), 一般目標(general goal), 部分目標(sub goal), 細部目標(target)로 區分하여 考察하면 다음 <圖 1>과 같다.



〈圖 1〉濟州地域觀光開發의 目標

2. 戰 略

가. 觀光開發計劃의 段階的 接近

濟州地域觀光開發計劃의 不均衡을 克服하고 據點開發式 戰略을 修正하기 위해서는 觀光開發計劃을 巨視的 段階의 觀光開發計劃, 過程的 段階의 觀光開發計劃, 微視的 段階의 觀光開發計劃으로 區分하여 計劃이 樹立되어야 한다. 巨視的 段階의 觀光計劃은 總量指標를 바탕으로 濟州道 全體를 對象으로 한 觀光開發圈域의 設定과 觀光受容能力을 測定하는 計劃이다. 過程的 段階의 計劃은 觀光開發小圈을 設定하고 小圈別 觀光需要豫測과 觀光資源價值評價 및 觀光地 開發의 優先順位 定立作業이 主宗을 이루게 된다. 微視的 段階의 觀光計劃은 開發의 優先順位에 따라 地域別 開發計劃을 具體화하고 施設物의 導入類型과 觀光活動相을 連繫시키는 作業이다.

나. 觀光地 開發의 優先順位 定立

濟州地域觀光地開發의 優先順位 決定을 위해 서는 觀光資源의 價值評價와 價值評價後 活動相因子를考慮한 優先順位 決定의 段階的 方法을 擇하여야 한다.¹⁰⁾ 濟州地域觀光開發의 優先順位는 다음과 같이 細分化되어야 한다.

(1) 休養型	春秋指向 休養型	(2) 慢樂型	春秋指向 慢樂型
	夏季指向 休養型		夏季指向 慢樂型
	冬季指向 休養型		冬季指向 慢樂型
(3) 教育文化型	春秋指向 教育文化型	(4) 自然景勝型	春秋指向 景勝型
	夏季指向 教育文化型		夏季指向 景勝型
	冬季指向 教育文化型		冬季指向 景勝型

한편 觀光地의 開發優先順位가 決定되는 過程에서 觀光地의 性格을 類型化할 必要가 있다. 觀光地의 性格別 類型化는 海洋休養地, 內陸休養地, 青少年修練地, 自然景勝地, 觀光, 레크레이션地區, 保養觀光村, 年金生活者村, 勤勞者休養村, 觀光自由地域, 固有海洋資源 保存地로 區分하여前述한 目的別 季節別 優先順位 定立에 調和시켜야 한다.

다. 觀光自由地域의 設定과 開發

中國의 觀光門戶開放, 日本人의 海外旅行의 增大, 東南亞諸國의 所得向上에 따른 海外旅行自由化 등의 要因은 濟州道를 自由港(free port)으로 考慮하기에 앞서 濟州道內의 一定地域을 觀光自由地域으로 開發할 必要를 增加시키고 있다. 濟州地域의 觀光環境을 考慮에 둔다면 觀光自由地域으로 設定될 수 있는 地區는 中文觀光團地로 判斷된다. 濟州道는 韓國本土와의 地理的인 關係로 인하여 開發潛在力이 豐富하고 하와이, 홍콩, 싱가포르 등의 長點을 살릴 수 있는 國內最適의 立地條件을 具備하고 있다.

따라서 現在 建設中에 있는 中文觀光團地를 觀光自由地域으로 特化시키고 自由地域이 必要로 하는 施設物의 開發과 關聯法規의 補完이 要請된다. 觀光自由地域의 概念을 設定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觀光客側面에서는 外國人의 觀光行爲에 일체의 制約要因을 排除시키고 內國人의 觀光行爲에 대해서는 一定한 制約을 加하는 地域이다.

10) 李長春, 觀光計劃開發論(서울: 大旺社, 1983), pp. 158-190.

둘째, 觀光施設 投資面에서는 内國人の 경우 稅制 金融上의 支援 등으로 施設投資를 自由로이 할 수 있는 政策的 保護地域이며 外國人에 대해서는 開發面에서 稅制上의 惠澤을 賦與하되 運營面에서는 一定期間의 所有와 稅制上의 惠澤이 주어지는 地域을 意味한다.

셋째, 行政節次面에서는 外國人 出入國이 自由로이 이루어지고 認・許可 窓口의 一元化를 기하는 地域이다.

넷째, 國際交通面에서는 外國航空機의 자유로운 離着陸과 外國船舶의 자유로운 出入港이 이루어지는 地域이다.

라. 無形觀光資源開發

無形觀光資源으로서 開發이 可能한 것을 類型化하면 無形文化財, 鄉土文化祭, 民俗傳統놀이로 區分된다. 無形文化財와 鄉土文化祭는 濟州道內에서 開催機關과 開催期間이 設定되어 있으나 民俗과 說話, 傳統놀이에 대해서는 뚜렷한 考證이나 開發이 未洽한 實情이다. 이를 위하여 無形觀光資源目錄集을 作成하고 觀光性이 豐富한 民俗과 傳統놀이는 조속히 再現시켜 觀光商品으로서의 機能과 民族文化의 後世傳承이란 機能을 遂行케 하여야 할 것이다.

마. 地域特化觀光施設物의 開發

濟州地域의 地域性, 歷史性, 文化性을 土臺로 한 特化觀光施設物의 開發은 觀光需要 創出에 決定的으로 寄與하게 될 것이다. 特化施設物은 선비마을, 年金生活者村, 保養觀光村, 農漁村文化 博物館, 觀光農園, 山地型博物館, 귀양살이村 海洋交通手段 等으로 區分하여 考察키로 한다.

(1) 선비마을

韓國의 선비상을 再現시키는 마을을 開發하는 것이다. 朝鮮時代 선비들의 生活 모습, 科舉試驗에 爲한 事緣, 科舉試驗制度, 儒生들의 배움의 過程, 선비들의 趣味生活 등을 모아서 再照明하는 마을을 建設함으로써 外國人에게는 觀光商品으로서의 價值를 부여하고 内國人에게는 마음의 故鄉과 實際로 이 마을에서 生活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한다.

선비마을은 内國人을 對象으로 할 때 教職者, 軍人, 辯護士, 醫師, 劇作家, 詩人, 小說家, 스포츠맨 등 專門職種에 從事하는 분들이 老後를 趣味生

活을 즐기면서 보낼 수 있는 마을의 性格도 賦與한다. 선비마을에 必要한 宿泊施設은 朝鮮時代의 院을 再現하여 使用케 한다. 선비마을이 立地할 수 있는 地域은 海岸, 山岳이 바람직하다.

(2) 年金生活者村

선비마을이 過去의 文化를 再現하는 現代 속의 過去라면 年金生活者村은 內外國人 中 年金으로 生活하는 階層을 誘致하여 老後生活의 參보람을 되새기는 마을의 特性을 지닌다. 外國人年金生活者의 誘致는 滯在日數의 增加로 인한 良質의 外貨를 獲得할 수 있는 契機도 된다.

年金生活者村의 立地地域은 선비마을과 비슷하지만 季節移動式 年金生活者村을 形成하면 그 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을 것이다. 年金生活者村의 宿泊施設은 韓國 固有宿泊施設인 院, 客舍, 館의 形態로 하되 內部施設은 內外國人別로 區分하여 利用可能한 現代式 寢室構造를 갖추도록 한다.

年金生活者村內에는 民俗村, 民俗公演場, 傳統놀이 文化를 再現시킴으로써 濟州地域 固有觀光資源으로서의 價值를 賦與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保養觀光村

保養觀光村의 性格을 보면 그 利用階層은 대부분 長・老年層이 選好할 것이며 外國人에게는 保養觀光商品으로서 濟州型 特化土俗商品으로서의 價值를 지닌다. 保養觀光村은 濟州道의 地區別 氣候條件을 最大限 活用할 수 있는 地域에 建立되어야 한다.

保養觀光村內에서 販賣할 것을前提로 開發할 수 있는 食品의 例를 提示하면 人夢을 主材로 한 수우포, 熟地黃과 밤을 利用한 파이와 감귤주 등이 있다. 保養食品은 순수健康食과 自然食品, 成人病 治療와 預防食品으로 區分하여 食單을 開發할 必要가 있다.

(4) 農漁村文化博物館

濟州地域의 農漁村에서 古代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農漁村文化를 展示하는 博物館이다. 農耕博物館은 春夏秋冬別 農器具展示館과 農耕文化에 關聯한 各種 資料를 紹介하는 코너를 濟州道內의 特定地區에 設置한다. 漁村文化博物館은 漁村에서 使用한 各種 漁機具를 蒐集, 展示하고 漁村文化가

時代別로 變遷해온 過程을 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한다.

農漁村文化博物館은 內外國人에게 새로운 文化觀光商品으로서의 意味를 지닌다. 특히 視聽覺室과 研修院, 세미나실을 갖추어 教育의 場으로도 活用하며 農漁村文化를 紹介하는 팜프렛을 製作 弘報하여 農漁村文化에 關聯된 農·漁機具를 主題로 한 그림엽서를 製作 販賣한다.

(5) 觀光農園, 觀光花園

濟州地域의 地域的 特殊性을 살린 觀光農園과 觀光花園은 以上에서 列舉한 特化施設物의 觀光吸引力을 提高시키는 役割을 遂行할 것이다. 觀光農園과 花園을 中心으로 各種 多樣한 祝祭開發이 可能하며 특히 新婚夫婦를 對象으로 한 芷 祝祭를 季節別로 開催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된다.

(6) 山地型博物館과 林業學校

한라산의 特색을 살려 山地型博物館을 造成한다. 한라산의 1,800餘種의 樹種과 稀貴鳥類, 한라산과 關聯된 傳說, 說話, 民俗을 對象으로 開發하여야 한다. 한라산은 東洋에서 單一 山으로서 가장 많은 植物群이 棲息하고 있기 때문에 山地型博物館은 外國修學旅行團誘致와 外國各大學의 植物學科 學生들의 답사 및 修學旅行코스에 包含될 수 있다.

한편 季節別 林業學校를 開設하여 都市民들의 健康, 休息, 教育, 教養增進의 機會를 提供한다.

(7) 海洋觀光交通手段의 導入

濟州地域海底生活 등을 踏查할 수 있는 海底透視船의 導入과 濟州海岸一周型 循環旅客船, 水上飛行機, 웨기觀光의 擴充 등은 向後 濟州道 海上에 建立될 수 있는 Floaring Hotel과 Floating Restaurant, 海中에 建立될 수 있는 海中博物館의 觀光吸引力를 提高시키는 役割을 遂行할 것이다.

(8) 귀양살이村

李朝時代의 귀양살이村을 再現시키는 것이다. 濟州地域에 귀양은 사람들의 生活모습, 귀양을 오게된 原因 및 귀양살이 中 남긴 書畫, 文獻, 逸話 등을 展示하는 展示館을 곁들인 村落을 開發할 必要가 있다.

V. 結論

濟州地域은 韓國의 國土空間中 地理的인 要因과 氣候上의 特色으로 인하여 向後 韓國觀光目的地로서 크게 脚光을 받을 것으로 評價되기 때문에 濟州觀光開發計劃을 多角的인 側面에서 점진적으로 進行시킬 必要가 있다. 拙速한 開發은 破壞를 隨伴하고 短期的인 開發은 開發의 不均衡을 招來하게 될 것이다.

觀光開發計劃은 觀光政策과 깊이 連繫되므로 韓國의 觀光政策決定者들의 觀光政策決定過程에 濟州地域住民代表가 參與할 수 있는 制度의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前述한 濟州地域觀光開發의 目標가 達成되기 위한 戰略이 效率的으로 推進되기 위해서는

첫째, 地方自治制가 조속히 定着되어야 한다. 프랑스 랑도그루시옹 海岸觀光團地가 크게 評價를 받게 된 背景에는 地方自治제가 寄與한 점이 크다는 것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둘째, 民間主導型開發이 定着되고 開發의 主聯와 開發에 投入되는 資本이 濟州地域住民을 中心으로 이루어질 때 濟州地域觀光開發의 利益이 濟州地域을 富強하게 할 것이다. 특히 外地인이 所有하고 있는 濟州地域內의 觀光開發可能地는 中央政府, 地方政府, 韓國觀光公社, 土地開發公社가 주축이 되어 모두 매입한 뒤 開發의 基盤施設을 한 後 開發主體는 濟州地域의 地方自治團體나 濟州地域住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濟州道開發의 利益이 濟州地域住民에게 歸屬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濟州道에 國際會議產業을 育成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戰略이다. 그러나 KDI에서 提示한 域外金融센타의 建設은 資本市場開放이라는 國際環境與件을 考慮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事項이다.

넷째, 觀光開發計劃의 段階的 接近과 觀光資源 開發의 優先順位 定立 등의 諸計劃過程이 成功을 거두기 위해서는 濟州觀光開發企劃團을 設置할 必要가 있다. 濟州觀光開發企劃團은 民間, 地方自治團體 및 關聯專門家로 構

成되어야 한다.

다섯째, 觀光開發企劃團의 活動을 뒷 받침하기 위하여 濟州觀光資料銀行을 設立하여 資料의 菁集, 蕩積, 分析, 配分機能을 擔當케 하여야 한다.

여섯째, 濟州觀光開發을 效果的으로 추진키 위해 觀光振興法이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本研究의 戰略部分에서 提示된 觀光開發圈域이 補完되어야 할 것이다. 本研究의 戰略部分에서 提示된 觀光開發圈域設定과 段階別觀光開發計劃은 進續研究課題로 남기고자 한다.